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명예감시원 활성화 방안

농산물명예감시원 발대식 개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수입쌀의 시중판매 등에 대비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업인과 소비자로 구성된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1만명으로 대폭 확대 위촉하고 지난 12일 서울 경동시장에서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위촉된 명예감시원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쌀전업농연합회, 전국한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등 농업인 단체와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주부클럽연합회 등 13개 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됐다. 이들 명예감시원들은 이날부터 농산물 원산지 단속을 전담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의 특별사법경찰관 400명과 함께 주요 소비지인 대도시는 물론 시·군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 단속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우리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업인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농산물 명예감시원들이 원산지표시 감시·신고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원산지를 속이는 등의 농산물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시키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서정의 한농연중앙연합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제 농업인이 직접 나서 우리 농산물을 지켜야 할때”라며 “수입농산물이 범람한다 하더라도 원산지표시만 잘 지켜진다면 희망은 있다”고 강조했다.

이홍세 한농연 사업부회장과 윤순희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농산물명예감시원은 개방화시대를 맞아

우리농산물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농축산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명예감시원

1991년 7월 1일 정부는 농산물 원산지표시 제도를 도입하여 우리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들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이 거세지고 원산지를 속이고 부정행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한정된 단속 공무원만으로는 부정 유통 행위를 근절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국내산 농산물을 보호하고, 원산지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산자를 중심으로 1996년 명예감시원제를 첫 도입하고 시행하였다.

농산물 명예감시원제는 농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기타농산물의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민간인 등을 위촉하여, 농산물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지도·계몽 하고자 운영 되고있다.

2005년 명예감시원 확대 · 재편

1996년 처음 실시된 농산물명예감시원제도는 첫 해인 1996년 1,084명, 1998년 1,825명, 2000년 2,008명, 02년 2,600명, 05년 1월에 2,800명으로 점차적으로 그 수가 늘긴 했으나, 많은 양의 농산물 부정 유통과 원산지 허위표시등을 적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지난 2004년 명예감시원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원산지 합동단속을 통해 732건을 적발하였으며, 자율 감시 및 신고를 통해 431건을 적발하는데 그쳤다.

명예감시원체는 정책 집행과정에서 생산자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농정의 신뢰회복에 기여했으며, 감시원 운영을 통해 부정 농축산물 유통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적 관심이 늘어나면서



화하기 위하여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한도액을 올해 안에 현재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명예감시원의 역할

한농연 출신 명예감시원은 2005년 확대 시행과 함께 기존 84명에서 6,271명으로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이번 12월 발대식을 통해 위촉된 10,495명의 60%가 넘는 감시원이 한농연 회원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농관원과 한농연은 앞으로 2006년까지 한농연 출신 명예감시원을 1만 명까지 확대 위촉할 예정이다.

그럼 한농연 회원으로서 명예감시원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명예감시원에게는 농산물의 표준규격화, 품질인증, 지리적 표시, 원산지표시, 안전성조사 및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에 관한 지도·홍보와 위반사항의 감시·신고 및 기타 농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임무가 부여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단순히 행정적인 감시원으로 역할 밖에 찾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아무리 일선현장에서 농사를 짓고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일지라도 수백, 수천가지가 넘는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펼치기엔 역부족이다. 이에 각도·시군·읍면별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농연의 연대를 강화시키고 지회별로 감시원의 인원을 배정, 교육시스템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명예감시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면, 한농연은 각 지역별 소속 명예감시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이때 농관원은 교재 작성, 강사,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그리고 한농연이 농관원과 협의하여 부정 농축산물 유통근절 캠페인 계획을 수립하면 농관원은 홍보자료 제공과 활동 경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쌀 제협상, FTA 및 DDA농업협상 등 세계화로 인한 농업 부문 개방화 폭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농산물 마저도 맘 놓고 사먹지 못할 만큼 부정유통 및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협에 노출되어있다. 이에 명예감시원은 우리농산물의 우수성과 안정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수입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기만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개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농산물명예감시원 제도가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한농연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자율적인 감시 분위기가 확산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명예감시원들의 참여율이 낮고 원산지 식별방법, 신고요령 등에 대한 교육 부족으로 자율감시 활동이 부진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이에 2005년 1월 2,800명에 불과하던 농산물 명예감시원은 2005년 재편 확대를 통해 한농연 회원 6,271명을 포함해 22개 농민단체와 13개 소비자단체 회원 1만4,955명으로 확대되었다.

농산물 명예감시원측은 단순한 인원 확충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부정 유통 근절 캠페인 전개 및 교육을 통한 감시원의 역량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일상생활에서 감시신고 기능을 수행하는 감시원을 양성하여 수입 쌀 원산지 둔갑 행위 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감시체제 구축과 부정유통사태 및 수입농산물의 유통 정보 전파, 원산지 식별, 감시활동 등을 집중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5개 기동단속반(55명)을 각 도단위마다 2~5개씩 편성해 지난 2월중에 「설대비 특별단속」, 4월중 「건강식품 일제단속」 등 기획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수입이 급증하는 품목과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명예감시원을 참여시킴으로써 감시 효과를 높일 것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농산물 명예감시원 5천명을 더 위촉하여 1만5천명으로 늘리고 연차적으로 명예감시원을 10만명까지 확대함으로써 범국민적 감시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농업인 및 소비자단체가 자체적으로 원산지 부정유통 감시·신고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교육 강화와 활동비 인상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산물 부정유통 관련 신고를 활성화